



이
—
원

총청북도 도지사

종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북도 바이오토피아로 거듭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의 대형 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이 자리 잡고 있는 충청북도는 예로부터 산이 깊고 물이 맑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때문에 충청북도는 그 어느 곳보다 먼저 깨끗한 자연환경을 도의 브랜드로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에 걸맞게 충청북도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복지환경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만큼 주어진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데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에 앞장 서 온 이원종 충북도지사와 맑은 물 관리의 최전방에서 진두지휘를 맡아온 연구혁 수질관리과장을 만났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희 협회의 초대에 응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님은 충청북도가 최근 정부합동평가에서 복지환경 분야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도민을 위한 깨끗한 환경조성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케 했던 도의 환경정책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도는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 3개의 국립공원과 대청호, 충주호 등 2개의 큰 댐은 물론 세계 3대 광천수 중 하나인 초정약수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청정 환경 및 수질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큼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150만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기에 우리 도가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복지환경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환경정책 목표를 지속가능한 개발로 '청정충북 건설' 하는 데 두고 도민들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고장' 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둘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 셋째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 넷째 폐기물의 적정처리, 다섯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청풍명월 21'의 내실운영, 자연생태계 보전, 전국 최초의 환경사랑 '충북 그린카드' 발행 등을 비롯하여,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상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지하수의 적정개발 및 보존 등 다양한 환경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및 수질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이 잘 어우러진 살기 좋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실현에 적극 기여함은 물론 수도권 및 중부권 주민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수준 높은 복지환경을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필수라 생각합니다. 또한 물환경 분야는 특히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그간 충청북도의 물관리 현황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자랑하실 부분, 그리고 추진예정인 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맑고 깨끗한 물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질개선 등 물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은 도내 34개소의 지방상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촌·산간지역 도민들의 식수원인 간이급수 시설 2,254개소를 지속적으로 개량할 계획이며 노후상수도관도 2009년까지 획기적으로 개량하여 2005년 현재 79%인 상수도보급률



을 2011년까지 86%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5년 현재 72%인 하수도보급률을 2010년까지 88%로 향상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2,300만명과 충청시·대전광역시·천안시 등 중부권 450만명의 상수원인 충주호, 대청호의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 3,300억원을 투자하여 댐 상류 153개소의 하수처리장, 마을 하수도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규제로 많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민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수질관리과의 연구혁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연구혁 수질관리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합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약 70~80%를 차지하며 인간을 비롯한 어떤 생물체도 살아가는 데 단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가장 소중한 액체자산으로 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질관리과장과 모든 직원들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환경부 주관 물관리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수질관리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될 만큼 자신감을 갖고 아주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우리 도민은 물론 수도권과 중부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충청북도 수질관리과장

연
—
규

혁

“누구나 살고 싶은 충청북도, 모두가 마시고 싶은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앞서 이원종 도지사님께서 충청북도의 전반적인 환경정책과 더불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전략사업에 대한 큰 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는 곳이 바로 수질관리과라 생각되는데, 도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의 수질향상과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는 수질관리과의

조직구조와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도의 수질관리정책은 항상 ‘맑고 푸른물의 고장’을 만들어 맑고 깨끗한 물을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도 수질관리과의 조직은 수질관리, 수계관리, 상수도, 하수관리, 지하수담당 등 5

담당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과 농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 개량으로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생활하수, 분뇨, 축산폐수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오염하천의 자연생태복원으로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하천수계별 수질오염측정망 관리로 하천수의 수질개선, 지하수의 친환경적인 관리, 금강수계의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 물 부족에 대비한 범도민 물 절약 운동 등 수질오염예방과 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올해 '상수원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실제적인 이행과제를 제시, 성공적인 업무달성에 매진하고 계신데 그 이행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생산·공급하는 것이 최대 전략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략목표를 '상수원의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사업은 농촌 면지역의 지방상수도 9개, 지구 17개 면지역의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농촌산간지역 간이급수시설 198개소를 개량하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2004년 말 77.6%를 금년 말에는 79%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21개소를 확충하고, 하수관거 11개 지구를 정비하며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하수도 보급률을 2004년 말 71%에서 금년 말에는 72%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한강 및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하천 4개소 15km를 정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 43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친환경적인 지하수 관리사업을 위해 지하수 143,600공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지하수의 수위, 수질, 수온의 변동 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하여 지하수보조관측망 27개소를 새로이 설치하여 지하수자원의 종합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소중한 지하수자원을 보전관리토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물생산 및 공급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했던 우수실적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고 새롭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는 그동안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대부분 농촌 면소재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는 계곡수나 공동우물을 수원으로 하는 간이상수도나 가정용 지하수를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와 개별공장의 입지, 축산폐수 등 주변오염원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1단계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5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7개소의 지방상수도를 확장했습니다. 이어 2단계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3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8개소의 지방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이 75%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2단계 사업시행은 종전의 1개면 1사업지구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상수도가 개발된 시나 읍지역과 인근 면급지역을 통합, 소권역화하여 상수도를 확장·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산간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원인 간이급수시설 대부분이 지난 1970~8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까닭에 배수지 등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이에 따른 부식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998년도부터 '간이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총 823개소에 4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지방비 6억원을 매년 투입, 도내 전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수질검사(년1회 55개 전 항목)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도내 상수도관은 총 4,740km로 이중 설치된 지 16년 이상 된 노후상수도관은 1,265km로 전체 수도관의 27%에 해당됩니다.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누수발생 등 수도물의 수질저하와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노후상수도관 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1,260억원을 투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도물 음용 홍보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생산하여 공급함에도 수도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여 음용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도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음용을 확대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도청과도 단위 유관기관의 각종회의·행사시에 수도물병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도 전국체전과 2005년도 전국장애인 및 소년체전 시에는 각 경기장에 54만 병을 공급하여 음용케 함으로써 생수구입비 270백만원을 절감함과 동시에 수도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체전홍보용 문안을 삽입한 수도물병 200만 병을 전국에 공급하여 홍보효과와 더불어 수도물 직접음용 생활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수도권 및 중부권의 광역상수원인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어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악화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하수도사업비 3,30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8개소를 확장·증설하고 마을하수도 135개소를 새로 설치하여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원천 차단하여 수질을 1급수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여섯째, 마을하수도 운전방식 개선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도내 마을하수도 96개소에 대하여 유입하수의 유기성 고형물질을 자동 미세목 스크린을 통과시켜 활성 미생물처리 부하를 1.9mg/l로 줄임으로써 수처리 효율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마을하수도 운영기술의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자연형하천의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1990년부터 448억원을 투자, 39개소의 오염하천을 정비하였으며 2010년까지 210억원의 추가 투자를 통해 8개소의 오염하천을 정비하여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째,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입니다. 지하수의 주요오염원이 되고 있는 은닉·방치된 폐공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범도민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시·군에 폐공신고센터와 전담조사반을 설치 운영하여 지금까지 폐공 4,440공을 찾아 원상복구 조치하는 등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민간자본을 활용한 BTL 사업으로 도내 10개 시·군에 사업비 6천억원을 투자, 752km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도의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둘째, 하수처리장 공원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인식, 설치를 반대하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가동중이거나 설치중인 청주하수종말처리장 등 도내 25개소의 하수처리장에 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즉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을 비롯해, 체육시설과 같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하수처리장을 주민 친화시설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중부권의 광역상수원인 대청댐의 목표수질1급수 달성을 위해 지난 4월 댐상류 8개 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등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

습니다. 금년 중으로 지점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오염물질 삭감대책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질보전활동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수질보전활동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홍보활동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는 수질보전을 위해 주민, 민간환경단체, 공무원,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매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캠페인과 댐·하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청결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2000년부터 민간환경단체에 수질보전활동비로 총 69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병전우회 등 15개 단체에서 년 12만여 명이 참여, 충주·대청댐, 주요저수지의 수중쓰레기 수거, 하천별 자연정화 활동, 물사랑 운동 캠페인, 자연생태 탐사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물절약추진위원회와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추진은 물론, 언론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수질보전과 물절약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비단 관(官)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시민, 환경단체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 수질분야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민간 환경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주민 및 민간 환경단체의 이해와 협력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시책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수질관리정책을 입안하는 초기단계부터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야만 주민과 환경단체 모두가 공감하는 시책,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상 업무 추진 시에도 상호간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청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단체,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설립하여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한 하천조사 및 감시활동, 상·하류지역 교류 및 협력운동 전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친환경농업 실천활동 지원, 생태학습장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와 협력해 나가면서 물과 사람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수질보전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할 파트너이자 협회인 사업자 회원인 귀도에서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상하수도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또 매년 WATER KOREA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과 기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분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 개발과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선진기술교류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해외 전시회 및 세미나 참석을 현재 일본과 미국을 주로하고 있는데, 물선진국인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선진 유럽 등으로까지 교류 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물문화와 선진기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협회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함은 물론 수질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상수원 수질 보존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